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5월 27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한국 교회 목회자와 진지한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정치 시험대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균형과 야권의 생존 가능성을 함께 시험하는 선거가 되고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공식 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되면서 전국 판세가 빠르게 굳어지고 있음
- 초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됐으나,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장 선거처럼 일부 핵심 지역은 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으며, 부산·대구 등 전통 보수 지역에서는 야권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여당 우세 흐름이 강하고, 보수 진영은 계엄 사태 이후의 후유증과 내부 분열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여당 우세 속 야당의 저항 가능성”이 관전 포인트

□ 핵심 문제

1. 지방선거가 지방 현안보다 중앙 정치의 연장선처럼 소비되고 있음
2. 보수·진보 진영 모두 상대를 “제거 대상”처럼 바라보는 정치 문화가 심화됨
3. 교회와 기독교인 역시 정치적 분노와 진영 논리에 쉽게 휩쓸리면서 공공적 분별력을 잃어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
4.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3년 한국 정치의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큼

□ 결론

-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압도적 권력’과 ‘무너지는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있음

☎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지금 6·3 지방선거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이번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전”이 되었음

- 이번 지방선거는 형식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뽑는 선거.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의미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장악력을 확인하는 선거”로 해석됨
- 실제로 여권은 “정부 안정론”을, 야권은 “권력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까지 모두 한 정당이 장악할 경우 민주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됨
- 문제는 이런 거대한 중앙정치 구도 속에서 지역 현안과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상당 부분 묻히고 있다는 점. 원래 지방선거는 생활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나 현재의 선거 분위기는 “우리 지역을 누가 더 잘 운영할 것인가”보다는 “정부를 밀어줄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에 가까움

[2] 초반 압승론은 다소 약해졌지만, 전체 흐름은 여전히 여당 우세임

- 3~4월만 해도 여권 압승론이 강했음. 윤 전 대통령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무너졌고, 야권 내부 갈등도 심해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음
- 그러나 5월 중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남. 부산, 대구, 경북 등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보수 재결집’ 분위기도 감지됨.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접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부산·대구 등 전통 보수 지역에서는 보수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충남도지사 선거도 최근 접전 양상으로 변함
- 그러나 이것이 전체 판세 역전을 의미하지는 않음. “여당 우세 속 야당의 부분적 회복 가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3] 국민의힘은 단순 패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시험받는 선거를 치르고 있음

- 현재 국민의힘은 단순히 몇 석을 더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 진영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태 이후 극심한 타격을 입었고, 당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심각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음. 이런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싸움박질만 하고 있냐”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함. “전국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체를 시험받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무소속·비주류 보수 후보들이 별도 움직임을 보이며 보수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만약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참패한다면, 단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4] 지방선거인데도 지역 의제가 약함

-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의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음. 교통, 도시개발, 교육, 청년정책, 복지, 환경 같은 지방정부 핵심 이슈보다 “정권 심판”, “정권 안정”, “보수 붕괴”, “민주당 독주” 같은 중앙정치 프레임이 선거를 덮고 있음
- 지방의회 선거구 확정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후보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음
- 결국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전국 정치 재편의 전초전처럼 기능하고 있음. 이것은 선거의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만들고 있음

[핵심 정리]

- 현재 6·3 지방선거는 “지방의 미래를 고르는 선거”라기보다 “중앙 권력과 야권의 생존 여부를 평가하는 전국 정치 이벤트”처럼 흐르고 있음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 성경은 인간 권력을 절대화하지 않음

-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고 설명함. 인간은 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임
- 따라서 성경적 인간관은 어떤 정치 지도자나 정당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무오류한 존재로 보지 않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거의 구원자처럼 바라봄. 반대로 상대 진영은 악한 존재처럼 규정함
-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간 권력도 절대화하지 않음. 오히려 인간 권력은 반드시 제한받고 견제받아야 한다고 봄.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는 단순한 정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권력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성경적 지혜와 연결됨
- 기독교 세계관은 권력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함. “그 권력이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그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가?” “그 권력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는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건강한 균형과 절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 묻는 선거임

[2] 정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여야 함

- 오늘날 정치에서는 “이기는 것”이 거의 모든 가치 위에 올라가 있음. 상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처럼 여겨짐
-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정치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권력 획득이 아님. 정치는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책임의 영역임
-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이 질서 유지와 선의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함. 이는 신앙인이 단지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질서와 공공선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을 보여줌

- 지방선거는 지역의 교통, 교육, 환경, 복지, 청년 문제, 노인 돌봄 같은 실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누가 우리 편인가”보다 “누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함

[3]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특정 정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됨

-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과 동일시될 수 없음. 하나님 나라는 인간 정치보다 크고 초월적이며, 어떤 이념이나 정당으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가치임
-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신앙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임. 심지어 특정 정치 지도자를 거의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인물”처럼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특정 진영을 절대 악처럼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이런 태도는 정치적 열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 우상화에 가까움
-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력을 구별함. 교회의 역할은 특정 진영의 선전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공선이라는 기준 앞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음

[4] 정치적 분노는 신앙적 열심과 다름

-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강한 정치적 분노가 존재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반대하는 진영에 대해 깊은 혐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
- 문제는 이런 정치적 감정이 교회 안으로도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일부 성도들은 정치 뉴스를 소비하면서 분노와 적개심을 키워가고 있으며, 그것을 마치 신앙적 열심처럼 착각하기도 함
- 그러나 성경은 분노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음. 성경은 정의를 말하지만 동시에 화해와 절제, 사랑과 책임도 함께 말함.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임. 상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거나, 증오 자체를 정치 에너지로 삼는 태도는 기독교 세계관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인은 정치적 분노의 확대자가 아니라, 냉정

한 분별과 공동체적 책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

[핵심 정리]

-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당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견제, 공동체와 분열, 하나님 나라와 정치 우상화 사이에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임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이번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실과 담론 속에서 무엇이 왜곡되고 있는가?”

[1] 지방선거가 “전국 감정 대결”로 변질되고 있음

- 본래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과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유권자는 “우리 지역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청년 인구 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같은 질문을 중심에 놓아야 함
- 그러나 지금의 선거 분위기는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음. 실제로는 “내란당 심판”, “공소취소”, “민주당 독재” 같은 중앙 정치 프레임이 선거를 지배하고 있음
- 그 결과 후보 개인의 역량과 지역 공약 검증은 약해지고 있으며, 정당 감정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 즉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음
-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을 약화시키는 현상임.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하청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

[2] 여론조사를 결과 확정처럼 소비하는 것도 위험함

-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흐름이 강한 것은 사실임. 심지어 전통적 보수 지역

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선거를 ‘이미 끝난 경기’처럼 말하는 것은 위험함. 선거는 마지막 1~2주 동안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음.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지역 특성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여지가 있음
-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대구, 부산, 충남도지사 선거도 접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음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끝난 선거”라는 확정이 아니라, 끝까지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태도임

[3] ‘견제론’과 ‘안정론’ 모두 절반만 맞음

- 현재 여당은 ‘정부 안정’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권력 견제’를 강조하고 있음. 두 주장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갖고 있음.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반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음
- 그러나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지방 권력까지 한 정당이 동시에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유지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며, 따라서 ‘견제론’이 좀 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음
- 성경적 관점에서 정치 공동체는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점점 더 ‘상대 진영이 망해야 내가 산다’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부분임

[4] 정치 우상화와 정치 냉소주의가 동시에 커지고 있음

-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극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특정 정치 지도자와 진영을 거의 절대화하는 정치 우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 “다 똑같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냉소주의가 커지고 있음
- 정치 우상화는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정치 냉소주의는 공동체 책임을 포기하게 만든다. 성경적 관점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함
- 또 특정 진영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접근하고 있음. 뉴스,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 속에서 정치적 분노가 신앙적 열심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나타남.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공공신앙이 아니라 정치 우상화, 정치적

부족주의에 가까움

-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 세력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참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함. 특히 이번 지방선거처럼 중앙 정치 감정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일수록, 교회는 더 냉정하고 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해야 함

[핵심 정리]

-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영 감정을 폭발시키는 이벤트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 만약 교회까지 그 감정 소비 구조에 휘말리면, 공공적 분별과 공동체적 책임의 언어는 사라지고 말 것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와 기독교인, 그리고 시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 유권자는 “정당”보다 “지역 책임 능력”을 먼저 봐야 함

- 지방선거는 생활정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보다 누가 우리 지역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함
- 후보자에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 ①좋은 인품과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②건실한 삶(교육, 경력 등)을 살아온 사람인가? ③지역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④행정 또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⑤공약이 현실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선거용 구호인가? ⑥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등
- 정당은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인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습관은 결국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리게 됨

[2] 교회는 정치 동원이 아니라 공적 분별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함

- 교회는 특정 후보를 위해 사람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공공 문제를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돕는 공간이어야 함.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를 훈련하는 곳이어야 함
- 이번 지방선거처럼 중앙 정치 프레임이 강한 시기일수록 교회는 더 의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어 성도들이 지역 문제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야 함
-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여러 이슈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토의하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개발, 복지, 청년, 교육, 환경, 약자 보호 같은 주제를 실제 삶의 문제로 다룰 수 있음

[3] 기독교인은 투표를 공동체 책임으로 이해해야 함

- 어떤 성도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다 똑같다”, “누굴 뽑아도 변하지 않는다”며 냉소하거나 기권하기도 함
- 그러나 지방선거는 실제 삶과 매우 가까운 선거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로, 교통, 학교, 복지시설, 도시개발, 환경정책, 청년지원 정책 상당수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결정에 의해 좌우됨. 따라서 투표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공적 책임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물론 완벽한 후보는 없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 위험하고 가장 책임 있게 공동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분별하려는 태도임

[4] 선거 이후도 공동체 책임은 계속됨

- 선거는 하루지만, 지방정부의 영향은 4년간 이어짐.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도지사, 광역시장,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들은 당선이 확정된 후부터는 더이상 표를 구하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임기 내내 우리 유권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강자가 됨
- 따라서 선거 후에도 공약 이행, 지방의회 감시, 지역 문제 참여가 계속돼야 함
- 교회도 선거철에만 정치 이야기를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선거일 후에도 지역 공동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함

[핵심 정리]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은 정당 감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분별과 참여를 회복하는 것임. 투표 전에는 기준을 세우고, 투표 때는 책임 있게 참여하고, 선거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해야 함

■ Action Checklist

- ☐ 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로 보기 시작했다.
- ☐ 나는 현재 판세를 보되, 여론조사를 결과 확정처럼 소비하지 않기로 했다.
- ☐ 나는 정치적 분노와 신앙적 열심을 혼동하지 않기로 했다.
- ☐ 나는 교회가 특정 진영의 확성기가 아니라 분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 나는 “누가 이길까”보다 “누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

■ Final Message

- ☐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승패 경쟁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균형과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선거다.
- ☐ 현재까지는 여당 우세 흐름이 강하지만, 선거 막판 변수와 지역별 흐름 변화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 ☐ 그러나 이번 선거의 진짜 핵심은 누가 몇 곳을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압도적 권력’과 ‘무너지는 견제’ 사이에서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진영 정치의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분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 ☐ 교회와 기독교인은 이번 선거를 정당 감정의 전쟁으로 소비하지 말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분별과 참여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